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그림 : 최창임 프란치스카(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제1독서 이사야서 2, 1~5

화답송 시편 98(97), 1, 2~3, 4, 3다~4, 5~6 (© 2 참조 또는 3다)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2.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4.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서 10, 9~18

복음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태오 28, 16~20

영성체송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2017년 위령의 날 미사 일시 / 11월 2일(목) 11:00

장소 /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하늘공원) : 황철수 주교, 손삼석 주교 공동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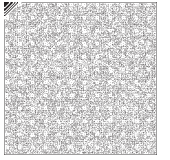
경주 공원묘원 : 권지호 신부(울산대리구장) 용호동 천주교 묘지 : 용호성당 주임신부

- 준비물 : 매일미사, 가톨릭성가
- 삼덕 공원묘원, 석계(오룡산) 공원묘원에서는 미사 없습니다.
- 양산(하늘공원) 방면 교통편 문의 : 247-5858(씨피여행사)
- 출발시각 및 장소 : 09:00 온천장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 양복 교통비 : 1인 13,000원(국민 116-25-0007-226 씨피여행사)

이 주간의 축일 ♣ 22일 : 누닐로, 도나토, 마르코, 멜라니오, 베레쿰도, 살로메, 세베로, 아베르치오, 알렉산데르, 알로디아, 에우세비오, 코르둘라, 필립보, 헤라클리오, 헤르메스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빛을 밝히자



피정의 집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피정을 준비하고 초대하였으나 유료 피정에는 사람이 없고 무료 피정에만 사람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자기 영성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이토록 투자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 슬퍼집니다. 물론 강사가 유명하지 않아서라고 자책도 하지만 세속화의 흐름을 더 강하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 주일을 지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하리 복음 말씀...” 이 성가를 부를 땐 저도 좀 뻘뻘하고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점을 일깨우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

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복음 전파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이지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누리는 권리 말입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는 ‘님의 침묵’의 시 구절처럼 음악이 끝나도 흥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마음같이, 전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이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큰 상을 아들이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 형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말라 하면 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들에게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 불은 이미 네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내 이웃이 보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었음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 이웃이 알아차리는 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처럼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불붙은 복음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합시다.

김 경 욱 사도 요한 신부
정하상바로영성관 관장



지금 여기

애들아,

요즘 엄마들은 자식 다 소용없단 말을 자주 하더라. 그동안 죄가 많아 이 남잘 만났다면 사람들도 살아보니 남편밖에 없다는구나. 그걸 리가 있겠니. 너희가 서운하단 뜻이겠지. 너희가 애뜻하단 말을 에두른 것일 테지. 나도 요즘은 남편밖에 없는 거 같구나. 해서 남편 없이 늙어가는 내 엄마께 전화라도 더 자주 하려 한단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23(월)~24(화)
김경욱 신부(정하상바로영성관 관장)
10.25(수)~28(토)
김재현 신부(거제동성당 부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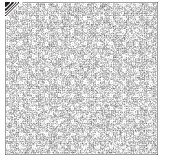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10.24(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울산대리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26(목) 퀴즈콘서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김종이 신부(남산성당 부주임)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0~18:00
10.27(금)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출연 : 김유진 세실리아 (우동)



겉만 신자다



김새록 목사

많은 사람이 횡한 바람처럼 빠져 나가고 들어오는 지하철역 입구에는 길바닥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걸인을 자주 보게 된다. 내미는 손이 살고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의미하게 내미는 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다. 앞만 보면서 빠른 발걸음만 재촉할 뿐이다. 나 역시 방관자가 되어 지나가고 만다. 가방을 열고 지갑 꺼내기가 귀찮기도 하거니와 바라는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로사’라는 세례명을 지니고 있는 걸 보면 누가 보아도 신자일진대 종교인이 지닐 법한 특유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는 이기심으로 가려져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만다.

신심이 깊은 분들은 벌써 언행이 다르다. 선택받길 바라며 관상용으로 화원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서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청정하게 피어 향기

를 발산하고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를 연상시킨다. 내 머릿 속에 야생화처럼 연상되는 사람 꽃이 활짝 피어 떠오른다. 그분은 이기대 성당 ‘셋별’ 레지오 단원인 데레사 님이다. 단원 10명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대체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야겠구나 하고 은연중 배운다.

오래 사용하여 촛농이 떨어지고 지저분한 레지오 흰 보를 가지고 가서 빨아 오시는가 하면, 회합 때마다 미리 와서 단원들의 방석도 깔아 놓으시고, 커피도 타가지고 와서 한 모금씩이라도 나눠 마시려고 하는 등 레지오 정신인 성모님을 닮은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종, 기도 생활이 몸에 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위선이 절로 고개를 숙인다. 좋은 글을 읽고 써도 잘 답습이 안 되는데 몸

을 낮추고 소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의 행동은 쉽게 감동으로 전해 온다. 인간의 힘이 아닌 신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신앙의 척도는 목주기도를 얼마나 바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오늘 주일 미사 때 주임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데레사 님을 보면 맞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터, 나 역시 지하철역 걸인처럼 간절함 없이 목주기도를 바쳤기에 기도의 체험을 못 하고 있을 것이다.

겉과 속이 일치된 참 신자가 되길 바라며 진정성이 있는 참된 목주기도를 바치라는 성모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 수필가 rose0624@hanmail.net

환경과 생명 자연에 대한 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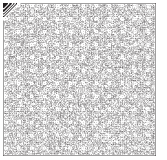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 다.” 미국 인디언 아타파스칸족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딸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너른 품에 안고 있는 산을 보고 인격체인 양 예의를 갖추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적 풍습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찬미받으소서』의 정신도 인디언 어머니의 소박한 심정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생명의 사슬로 우리를 감싸는 자연은 분명 일시적인 방문지,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원래 창조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연에 기어코 개발의 손길을 뻗어 조작하는 것이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분명 도시

의 삶은 인류 문명의 거대한 발전입니다. 도시화를 통해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할 건 없습니다. 게리 슈나이더라는 교수는 “우리는 영원히 살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있고 쓰레기와 싸우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신비 앞에 겸손되어 무릎 꿇어야 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을 파괴하고 무한한 소비 문명에 기대어 결국 쓰레기로 버려질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시림에서 벌거벗고 사는 것이 낙원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삶을 희망하고, 그리스도교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자연은 우리의 가정이며, 그에 걸맞게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십자가의 길 기도 드리러 오세요

최 태 복 엘리사벳



고2 딸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성당 사무실에서 구역분과 성지순례 일정표를 가져가라는 연락이 와 있었다. 성전에 들러 성체 앞에 잠시 앉았다가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받아 복사해서 구역함에 한 부씩 넣어두었다. 성모회 자매들이 우리농 물건을 받고 개수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성당 카페에 들러 시원하게 냉커피 한 잔을 마시니 더위가 가신다.

갑자기 신부님 말씀이 생각났다. 십자가의 길 오르는 길에 마대를 깔았다며 9월부터 금요일마다 자유로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느낌이 들어 성모 동산으로 올라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 십자가의 길 시작기도를 드리고 제1처부터 천천히 따라 올라갔다. 아치형의 덩굴나무 숲을 지나는데 더위에 길게 늘어

진 수세미도 눈에 띄고 속이 드러난 여주도 보였다. 조금 더 가니 다래도 조롱조롱 달려 있고, 강한 생명력을 한껏 뽐내는 녹색의 나뭇잎과 풀잎들, 선명한 색의 나비들, 늦더위를 장식하는 시끄러운 매미 소리, 자연과 인공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14처를 묵상하고 올라오니 정자가 있다. 누군가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쉬곤 하였는지 아이들 방에 깔려 있었을 것 같은 정겨운 고무 매트가 놓여 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마치고 성당 마당을 걸어 나오는데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한 느낌을 받고 '파라다이스'란 단어가 떠올랐다. 연령층이 높은 신자들을 위한 아담한 십자가의 길, 신부님의 세심한 배려, 관리장님의 땀 흘림으로, 거기다 자연의 힘이 보태어져 신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성당 신자들은 물론이고 해

운대를 방문하는 신자님들, 유리창으로 하늘과 숲이 빼꼼히 성당 안을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성당으로 조배하러 오세요. 그리고 우동카페에 들러 신부님께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도 맛보고 담소를 즐기며 쉬다가 가세요.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 가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제들과 수도자들 신자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동성당

주보 편집실에서는 여러분의 진솔하고,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열두광주리'에 담으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체험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글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jubo@catb.kr



지난번에 언급한 '초월적 가치'란 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땅과 하늘을 가지고 풀어보렵니다. 인간은 땅의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인간의 이름인 '아담'은 땅, 흙을 뜻하는 '아다마'란 히브리어가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 삶은, 먹고 산답시고 늘 으르렁거리며 미움을 쌓아 놓고 시기와 질투도 하고, 심지어 남 못되라 기도 아닌 기도도 바치면서 살아가는, 좀 지저분하고 때 묻기 마련입니다. 이걸 씻어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땅 위가 아닌 다른 곳을 필요로 합니다. 그 자리가 하늘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머리 위, 해와 달이 떠 있는 물리적인 하늘만이 아니라, 속된 땅 위에 사는 인간을 정확시켜 주는 고결한 하늘, 어느 시인처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다짐하며 '우러러' 보는 숭고한 하늘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에게 하늘은 또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고매한 영역입니다. 이런 여러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땅 위에서 펼쳐지지만, 동시에 하늘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人間)은 땅 위와 하늘 아래, 그 '사이(間)'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땅 위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가치가 '현세적 가치'라고 한다면 하늘과 관련된 가치가 '초월적 가치'입니다. 초월적 가치는 이익이나 편리 등과는 거리가 먼 인간 본연의 가치, 윤리적 가치, 참 삶에 대한 가치, 거룩함과 숭고함의 가치입니다.

■ 흥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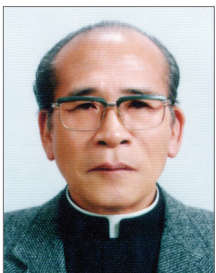
교구
소식

하안토니오 몬시뇰,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 선종



교구 원로 사제인 하안토니오 몬시뇰(Trauner Josef Anton, 향년 95세)이 지난 10월 14일(토) 오전 4시에 노환으로 선종했다. 故 하안토니오 몬시뇰의 장례미사는 지난 16일(월) 10:00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전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 전 의정부교구장 이한택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 수도자, 4,000여 명의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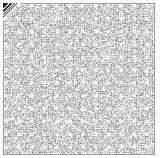
황철수 주교는 강론 중에 “하안토니오 몬시뇰의 힘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며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는 복음 말씀에 따라 몬시뇰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이제는 본 고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고인은 양산 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되었다.



또한 지난 17일(화) 오전 3시 교구 원로 사제인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향년 93세)가 노환으로 선종하여, 19일(목) 10:00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장례미사가 봉헌되었다. 고인은 양산 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되었다.

♣ 26일 : 가우디오소, 로가시아노, 루스티코, 루치아노, 마르치아노, 빈, 에바리스토, 에아타, 체드, 콰드라제시모, 펠리치시모, 플로코, 플로리오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 피날레 감사제



지난 10월 13일(금) 강서체육관에서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 피날레 감사제’가 전국 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셀(Cell) 회원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묵주기도 20단을 바치면서 시작한 기념행사는 뮤지컬 ‘파티마, 희망을 노래하다’ 상연,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 행렬, 감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사를 주례한 손삼석 주교는 “우리들은 죄인들과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희생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 전국순회는 지난 8월 22일 의정부교구 파티마 평화의 성당에서 의 환영미사를 시작으로 54일간의 대장정을 이번 행사로 마무리 하였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특별기획 ‘소리풍경’



부산가톨릭평화방송(사장 : 김두완 신부, 총괄국장 : 윤기성 신부)은 지난 9월 26일(화)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소리로 만나는 영화-소리풍경’ 영화 콘서트를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개최했다. 이날 영화 상연 전에는 클래식 공연이 있었고, 차태현, 김유정 주연의 ‘사랑하기 때문에-2017’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 음성해설(화면해설)과 한글자막(자막해설)을 넣어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화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10.23(월) 10:00 목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 10.27(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대리구장과 함께 걷는 양업길 순례

· 10.28(토) 09:30~16:30(시작미사: 연양성당 10:00)
· 양업길(연양성당~김영제묘)
대상: 울산대리구 내 본당 신자들
준비물: 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개인 점심 도시락(반드시 지참)
신청: 참가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신학생 부모 피정

· 10.29(일) 10:00 · 교구청
준비물: 미사도구, 목주, 필기도구
문의: 629-8760(성소국)

본 당

수정성당 서공석 신부 특강

· 10.16(월)부터 매주 월요일 10:30~11:30
· 수정성당 / 주제: 하느님
교재비: 1만원 / 문의: 010-3181-8816

남천성당 성령기도회 월 미사

· 10.30(월) 19:30 목주기도, 20:00 미사, 안수
강사: 장훈철 신부 / 문의: 010-4329-7306

성음악 미사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 10.31(화) 19:30 · 수정마을성당
출연: 지휘 이질성, 반주 김효정, 복소양상블
박동욱 외 9명 / 문의: 337-9445(본당 사무실)

중앙성당 제3회 용두산길 음악회
클래식에 물든 단풍여행

· 10.30(월) 19:00 · 대성전 / 문의: 246-4284

덕계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 2018년 1월부터
문의: 010-6332-9565

반송성당 관리자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운전면허(1종 보통), 기타 기능자격증소지자
문의: 542-1530

온천성당 사무장 구함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PC(한글, 엑셀) 능가자, 운전(1종 보통)
문의: 552-0355, 556-0356

해운대성당 사무원 구함

PC(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 문의: 746-5881
제출서류: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기관 · 제 단체 · 위원의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10.26(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441-6403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10.26(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울산: 11.10(금) 10:00 옥동성당
주례: 박종석 신부(해병대사령부 해병중앙성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10.28(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622-5588(평협)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10.27(금) 22:30
강사: 박상대 신부
- 젊음이 성령기도회
· 10.23(월) 19:30 전포성당
· 10.2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목주기도 성일 수요1일 무료피정
· 10.25(수) 11:00~16:00 / 점심 제공
강사: 김규한 신부 / 버스노선표 참조
- 교구 성령목상회
제434차: 10.27(금) 19:00~29(일) 17:30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회비: 10만원, 미리 입금하셔야 정식 접수됩니다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0.26(목) / 강사: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 100단 목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11.13(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 모집

· 10.25(수) 19:30 · 망미성당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010-7339-8545 / 단장: 김종민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11.21(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010-2428-5785

라우다떼 윈드앙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 10.29(일) 13:00 · 서대신성당, 초대
지도: 신요안 신부 / 지휘: 방준모
문의: 010-5917-8071(총무)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5. 10. 26. 김성도(모세) 신부님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기념 사진전
일어나 가자!



▶ 전시: 10.28(토)~11.6(일)
▶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 전시 개막 및 초대: 10.28(토) 15:00
▶ 문의: 462-1870, 주최: 천주교평양교구

제3회 청년 참행복축제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국시 19.17)

모 고 지 플리마켓

2017.11.5. 주일.
푸른나무교육관, 12:00-18:00

Flea Market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대학청년부

마켓공연

- 소풍, 춤에 · 버스킹
- 캘리그라피 · 포토스튜디오 등
- 악거리 등

여행부스

- Remember 0416 · 문체적 날카
- ESCAPE(방탈출) · Wii 게임
- 기도의 벽 · 추억의 게임
- 풍립컬 · 기업체험 등

일정

- 12:00-16:00 개장식 및 플리마켓
- 16:00-17:30 미사준비 및 미사
- 17:30- 촬영 및 정리, 해산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h2>서울공예사</h2>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631-5006, 631-5007 황인환(가솔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들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커피창고 (인플렉션컴퍼니) 부산경남 원두커피머신 단기간렌탈 바리스타출장, 커피제이터링, 커피재료 도매 김 재 윤 (헨리코) 010-5575-0262</p>	<p>(주)부산 리무진 장의차 각 본당의 연도회장님께 연락하시면 부산교구청과의 계약된 내용대로 할인 금액(약3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 성 수 (미 카엘) 418-4444</p>	<p>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연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업,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법무법인 올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시구정 옆 바른병원 3층</p>	<p>종합법률사무소 로앤리 (변호사 이세진&변호사 이윤대) 사무장 김 성 철 (마르코) 010-5658-7748 717-3530 연제구 법원로 12, 1305호(거제동 로앤리) 경찰청 정면앞</p>	<p>한미모피 핑크, 여우, 각종모피제품 도매 핑크코트, 소품 등 A급 리폼, 수선 박 재 석 (베드로) 645-8877, 647-8877 부산진시가지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p>

6 · 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27일 : 가우디오소, 빈첸시오, 사비나, 에로테이스, 엘레스바안, 오레탄, 카피톨리나, 크리스테라, 프루멘시오, 플로렌시오

부산ME 소개모임

352차 ME 주말 : 11.10(금)~12(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제403차(자매), 제404차(형제) 꾸르실료

제403차(자매) : 11.9(목)~12(일) / 마감 : 11.2(목)
 제404차(형제) : 11.23(목)~26(일) / 마감 : 11.16(목)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규교사채용

선발과목 및 인원 : 전자 4명 / 응시원서 접수 : 10.23(월)~27(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세무사항 :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daeyang.hs.kr) 참조
 문의 : 510-0712(성모학원 법인사무처)

소화영아재활원 생활재활조사 및 조리원 구함

자격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조리사) 소지자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 참조(www.sohwa.or.kr)
 마감 : 10.25(수) / 문의 : 644-1729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무료 교육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돌봄교육 II>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심화교육)

교육 : 10.25(수) 10:00~17: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지하강의실(무료 주차 가능, 마을버스 이용 시 간호대학 입구 하차)
 대상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이수자 또는 관심있는 분 / 수강료 : 무료(점심식사 제공)
 접수 : 전화접수, 선착순 40명
 문의 : 510-0951~3, edu.cup.ac.kr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제25회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정기전

보시니 10월 20일(금)~24일(화)

종더라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 010-3590-1043 / 회장 : 오연근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10.28(토) 11:00(별일성당 입구 강안로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파주올리베따노수도회 후원 미사

· 10.31(화) 14:00 · 성분도 은혜의 집(광안리)
 문의 : 010-9344-3771

특특! 바이블 청년피정(살며 사랑하며)

· 10.27(금) 19:00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
 · 부산 바오로딸서원 / 문의 : 010- 6375-2173

에니어그램과 마음여행

· 10.28(토) 10:00~17: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자아발견 여행 - 성격을 넘어 본질로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10.29(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10.25(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축제

· 11.3(금) 10:00~20:00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마당 / 문의 : 253-1922
 먹거리 및 물품 판매 등 / 수익은 저소득가정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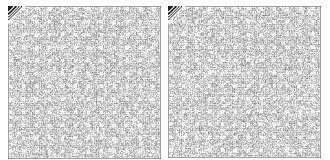
모집 : 10.25(수)까지(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회계업무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졸업 및 성적증명서
 문의 : 253-1922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춤을!(젊은이 피정)

· 10.27(금)~29(토) · 살레시오 광주영성의 집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 / 참가비 3만원
 문의 : 010-4893-0524(살레시오수녀회)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체험 피정

· 10.28(토)~29(일) / 대상 : 35세 미만 여성
 문의 : 010-5313-0241(전베로니카 수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노인복지주택 흔들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입주 신청 중(기존 17, 25, 34평형)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 의료, 건강서비스 및 취미활동 지원
 매일 10:00~17:00 전화, 방문 상담 가능(휴무일 상담 가능) / 문의 : 758-6231, 010-5574-6231

예수성심시녀회 우애피정

고요와 쉼이 있는 하느님 체험
 · 11.4(토)~5(일) · 평화계곡(성주)
 대상 : 만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 010-9286-2247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강사 : 권민자 수녀
 3박4일 피정 : 11.2(목)~17(일), 12.7(목)~10(일)
 8박9일 피정 : 11.16(목)~24(금), 12.26(화)~1.3(수)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 11.27(월) 14:00
 원서접수 : 11.6(월)~17(금) 17:00
 문의 : (02)2258-7076(가톨릭대학교 대학원교학팀)

한티순교성지 피정

[순교영성 1일피정] 주제 : 아름다운 만남
 · 11.2(목) 10:00~16:00
 강사 : 유은희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순교영성 1박2일피정] 주제 : 두 개의 천국
 · 11.4(토) 16:00~5(일) 13:00
 강사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문의 : (054)975-515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or.kr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018.4.23(월)~5.5(토) · 서유럽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부산가톨릭대학교 영어미사

기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5시 10분 (10/24, 11/14, 11/28, 12/12)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401호 성당

대상 영어미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 510-0508(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부산성모병원

2017년 '유방암 건강강좌'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정기검진, 나를 지키는 소중한 약속"

일시. 10월 25일(수) 14:00 *문의* 933-7098

장소. 부산성모병원 4층 베네딕도 홀 (외과 외래)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1 카메라타 챔버콰이어와 함께하는 목주기도성일 저녁기도

르네상스와 바로크 성음악과 세속음악

일시. 10/30(월) 연주 전 해설 19:00, 연주 19:30

장소. 가야성당 성전 *무료 입장*

내용 : 몬테베르디의 기념비적인 교회음악곡! 성모의 저녁기도

문의 : 462-1870 / www.bc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요양보호사 국비교육생 모집 직무교육 모집 818-1004, 245-1004 전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법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전국상가, 토지매매, 경매전문 태양공인중개사 대표. 김 창 환(심플리치오) 010-3874-1627</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후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 최병택, 유관희, 남화성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의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 홍유진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제이스 귀금속 최신행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만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아녜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 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임애경(젬마) 055-333-6300, 010-9809-6300</p>	<p>Yanschuns Film 웨딩영상제작 양성재(라파엘) 010-9889-5433</p>	<p>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마태오) 558-7575 은전장역 동래플러스(튀턴) 우성빌딩 3층</p>